

홍도 '바다 불청객' 팽생이모자반 '몸살'

중국발 추정 700t 유입 쓰레기장 방불...수거 '골머리' 신안 전역 확산...김 양식어가 피해·소득감소 이어져

신안 홍도가 '바다 불청객' 팽생이모자반 자반으로 뒤덮여 몸살을 앓고 있다. 강풍을 타고 신안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전남도와 신안군에 비상이 걸렸다. 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 해역에 모자반이 쌓이면서 수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산 11억8천만원을 긴급히 읍·면에 배정해 해안가에 유입된 모자반 및 양식장에 부착된 모자반을 수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모자반 발생 원인, 경로 등은 전문가에 의뢰해 이

를 규명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5일 담당자들을 신안 지역 피해 현장에 보내 상황을 점검하고 팽생이모자반 40t을 수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모자반이 현재 물러오는 도중이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거 비용과 어민 피해 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해마다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

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팽생이모자반까지 밀려오고 있다"며 "선제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지자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해역에는 2018년에도 1천800여의 모자반이 중국에서 유입됐다. 수거 인력 1천660명, 선박 635척 등 4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처리한 바 있다. /신안=양훈기자



지난 1일부터 불어닥친 강풍으로 천연기념물 제170호인 신안군 흑산면 홍도에 팽생이모자반이 뒤덮여 있다.

신안군 전역에 유입된 팽생이모자반은 약 700t으로, 중국에서 발생해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흑산도와 홍도 1·2구, 다물도 등의 해안가는 팽생이 모자반으로 온통 뒤덮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또 자은도와 비금도의 해안가 모래사장 등 물론 임자 삼두·수도, 증도 검산, 지도 등의 김 양식장까지 팽생이모자반이 덮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양식 중인 김에 모자반이 둘러붙으면서 생산량·품질 저하 우려로 어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김 채취 때 모자반 제거를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 고스란히 어가 피해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은 올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오늘의 날씨 ▶별례 지역 날씨 최저/최고기온

해돋이 07:42 해질 17:36
달돋음 00:59 달짐 12:52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3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20 (잘 마르지 않아요)
- 세차 20 (급하지 않으면 미루세요)
- 운동 60 (실내운동 즐겨요)

지역	강수확률(%)	지역	안주	간주
광주	90-90	목포	08:11	01:00
목포	90-90		20:35	13:24
순천	30-10		03:09	09:10
여수	30-10	여수	15:28	21:48

서해 남부 (풍향/피고)

오전	앞바다 ☁ 북서-북/2.0-4.0m
	먼바다 ☁ 북서-북/3.0-5.0m
오후	앞바다 ☁ 북서-북/2.0-4.0m
	먼바다 ☁ 북서-북/3.0-5.0m

남해 서부 (풍향/피고)

오전	앞바다 ☁ 북서-북/2.0-3.0m
	먼바다 ☁ 북서-북/3.0-5.0m
오후	앞바다 ☁ 북서-북/2.0-3.0m
	먼바다 ☁ 북서-북/2.0-4.0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월 8/금	☁ (-13/-5)	☀ (-17/-10)	☀ (-14/-4)	☁ (-16/-8)	☀ (-14/-5)	☁ (-2/0)
9/토	☁ (-12/-2)	☁ (-15/-6)	☀ (-12/-1)	☁ (-15/-4)	☁ (-13/-2)	☁ (0/3)
10/일	☁ (-8/1)	☀ (-12/-3)	☀ (-8/2)	☁ (-12/-1)	☁ (-10/1)	☁ (2/6)

▶날씨안내 : 국민일보131

남구,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무료서비스

남구가 광주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장애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 관내 장애인들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찾는 불편을 없애기 위함이다.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서비스는 등록증 수령때까지 장애인의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 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는 지난해 연말 충청지방우정청과 우편배송을 위한 협약을 맺은 뒤 올해 연

초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도입에 따라 관내 장애인 등록증 발급 업무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내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구는 관내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등기비용 (건당 3천820원)을 예산으로 편성, 해당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김동수기자

동구,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광주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동구는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 2천만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대비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의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정량평가(70%), 정성평가(30%)를 실시해 그룹별로 최우수, 우수 단체를 1곳씩 선정했다. 동구는 그동안 ▲부구청장 주재 상·하반기 징수보고회 개최 ▲세외수입운영시스템 정기적 교육 실시 ▲담당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 매뉴얼 배포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이번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오승지기자

지역 대학들 오늘부터 정시모집 돌입

인터넷 원서 접수...대부분 수능 성적 100% 반영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7일 시작된다. 6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4년제 대학은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전문대학은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한다. 전남대학교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학부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1천254명(광주캠퍼스 1천55명, 여수캠퍼스 199명)을 선발한다. 가군에서 63명, 나군에서 651명을 뽑는다. 일반 모집의 경우 수능 100%, 예·체능 계열은 실기고사와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자연계열 일부 모집 단위는 '수학 가' 영역 점수에 대해 20% 가산점을 적용한다. 조선대학교는 정시모집을 통해 총 1천29명을 선발한다. 가군 523명, 나군 506명이다.

가군 일반 모집과 지역인재는 수능 100%, 미술체육대학은 수능 40%와 실기 60%를 적용한다. 나군 일반 모집은 수능 100%, 사범대학은 수능 98%와 면접 2%, 음악교육과는 수능 46.6%와 면접 1%, 실기 52.4%로 학생을 선발한다. 호남대학교도 정시모집 나군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모두 40개 학과에 317명을 모집하며, 수능성적 100% 전형으로 선발한다.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등 5개 영역의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며, 이때 탐구과목은 우수 1과목을 반영한다. 호남대는 올해 처음으로 보건, 사범계열 등 일부 학과를 제외한 29개 학과를 통합선발 방식으로 모집한다. 동신대학교 역시 정시모집 가군, 나군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가군에서는

한외예과 20명, 간호학과 10명을,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다군의 경우 학과별로 수시 미충원 인원을 모집하며 수능 성적 80%와 학생부 성적 20%를 적용한다.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은 국어 25%, 수학 25%, 영어 20%, 탐구 영역(상위 1과목) 20%, 한국사 10%이며 수학 가형에 응시한 수험생은 백분위 취득 점수에 10% 가산점을 준다. 문과, 이과, 예·체능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광주대는 이번 정시에서 가군과 나군 491명을 모집한다.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은 수능 100%이며, 영역별 반영비율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25%, 탐구(1과목) 10%, 한국사 5%이다. 수능 가형에는 취득 백분위 점수에 10% 가산점이 적용된다. 정시모집은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 등 전형별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단대 범위의 광역화 모집 단위로 선발한다. /최권범기자

광주대학교, 장학금 혜택 호남권 1위

광주대학교가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에게 최대 400만원까지 장학금을 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대는 수능 성적에 따라 학업 장려금을 최대 400만원부터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등 장학금을 대폭 늘려 지급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시 최초 합격자에게는 학업장려장학금 60만원, 충원합격자에게는 학업장려장학금 20

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토록 했다. 또한 수능 4개 영역(국어, 영어, 수학, 탐구(1과목)) 평균 등급에 따라 4년간 등록금 전액부터 입학 학기 등록금을 25%까지 면제하며, 국가 장학금 대상자들은 소득분위에 따라 해당 학기 최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50여종의 질 높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신입생 전원이 입학할 수 있는 기숙사 제공과 광주 시내 전 지역 무료 통학버스 운영 등 재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최권범기자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